



## 「범접할 수 없는 완강 신화」 국어 모의고사 및 해설(6)

| 박혜선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 12.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름지기 자신의 삶을 꾸준히 성찰해야 한다.  
→부사어 ‘모름지기’와 서술어 ‘성찰해야 한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성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으로 바꾼다.
- ② 그 땅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적합하기도 하다.  
→서술어 ‘적합하다’는 목적이 ‘농사를’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기도 하다’와 같이 바꾼다.
- ③ 만 점을 받으려면, 철저한 복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절대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의미로서, 긍정문에 쓰이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문장은 고칠 것이 없다.
- ④ 그 팀이 잘되는 이유는 조직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짜여져’는 이중 피동이므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짜여’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①

현대문학

난이도: 중

#### 【해설】

부사어 ‘모름지기’와 서술어 ‘~해야 한다’는 호응하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 〈오답해설〉

- ② 서술어 ‘적합하다’는 ‘~에’라는 부사어와 호응하는 2자리 서술어이므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기도 하다’와 같이 바꾸는 것은 옳다.
- ③ ‘절대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의미로서, 긍정문에 쓰이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문장은 고칠 것이 없다.
- ④ ‘짜여져’는 ‘짜-+이(피동접미사)+어지(피동 보조용 언)+어’의 구성으로 이중 피동이다. 따라서 ‘짜여’ 혹은 ‘짜여져(짜+어지+어)’로 고쳐야 한다.

#### 【세상 어디에도 없는 추가 해설】

##### 1.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과연 ~로구나, 여간 ~지 않다, 결코 ~가 아니다(~해서는 안 된다), 전혀 ~없다(~아니다), 별로 ~지 않다, 차마 ~수 없다, 하물며 ~라(~ㄴ가), 뉘어서 ~(으)르 것인가, 아마(틀림없이) ~(으)ㄹ 것이다, 만약(만일) ~더라도, 혹시(아무리) ~ㄹ지라도, 비록 ~지라도(~지 만, ~더라도, ~어도), 모름지기(미땅히,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한다, 마치(흡사) ~처럼(~같이, ~과 같다)

##### 2. 조사의 올바른 쓰임

- 그것은 대회를 임하는 선수의 정신 자세에 관한 문제이다.  
→ 대회에 (~에 임하다)
- 우리나라가 호주에게 2:1로 이겼습니다.  
→ 호주를 (~을 이기다)
- 아직도 그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의 귓전에 울린다.  
→ 귓전을 (~을 울리다)
- 바둑을 인생과 비유하는 데는 조금의 무리도 없다.  
→ 인생에 (~에 비유하다)

### 13. 다음 작품과 주제가 가장 유사한 것은?

아아 내 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虛浪)하다  
공명(功名)이 때가 늦어 백발은 귀밑이요  
산업(產業)에 꾀가 없어 초가집 몇 칸이라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홍도 벽도(紅桃碧桃) 난발한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산은 첨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안개 걷어 구름 되니 남산 서산 백운이요  
구름 걷혀 안개 되니 계산 안개 봉이 높다  
앉아 보고 서서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다  
때 없는 두 귀밑을 돌시내에 다시 씻고  
탁영대(濯纓臺) 잠깐 쉬고 세심대(洗心臺)로 올라가니  
풍대(風臺)의 맑은 바람 심신이 시원하고  
월사(月榭)의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 남석하, 〈초당춘수곡(草堂春睡曲)〉

- ① 뛰어들 골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다,  
자시는 창 뱃기 심거 두고 보쇼서.  
밤비에 새님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서.
- ② 이화에 월백 향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 향야 잠못드려 향노라
- ③ 청산는 엇폐 향야 만고애 프르르며  
유수는 엇폐 향야 주야애 굿디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 호리라
- ④ 말 업슨 청산이요, 태 업슨 유수 | 로다.  
갑 업슨 청풍이요, 님즈 업슨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업슨이 몸이 분별 업시 늙으리라.

정답: ④      고전문학      난이도: 중상

#### 【해설】

〈초당춘수곡〉의 ‘아아 내 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虛浪)하다’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봄날에 늦게 일어나 속세의 일을 허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 / 홍도 벽도 난발한데 지팡이 짚고 들어가니 / 산은 첨첩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라는 구절에서 술을 마시고 봄날의 자연을 즐기려 나가는 과정과 산세의 풍경 등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시조 ‘말 업슨 청산이요~’ 역시 ‘자연을 벗 삼는 즐거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청산, 유수, 청풍, 명월로 대변되는 자연의 속성을 열거하면서 화자는 그 속에서 걱정 없이 늙어가겠다고 한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어 풀이  
말이 없는 것은 푸른 산이요. 모양 없는 것은 흐르는 물이로다.  
값 없는 것은 바람이요, 주인 없는 것은 밝은 달빛이 라.  
이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사는 병 없는 이 몸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 ① ‘뛰어들 골히 것거~’의 주제는 임에게 보내는 사랑, 이별의 슬픔, 혹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화자는 산 벌나무 가지를 골라 꺾어서 임에게 보냄으로써 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임이 화자의 분신과 같은 산 벌들을 보며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어 풀이  
산 벌나무 가지를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두고 살펴 주십시오. 행여 범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든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② ‘이화에 월백 향고~’는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인 정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얀 배꽃과 환하게 비추는 달빛, 은하수 등 고독과 애상의 정서를 흰색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소쩍새의 울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한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어 풀이  
하얀 배꽃 편 달 밝은 밤, 은하수는 깊은 밤을 알리는 때에  
한 가닥 봄밤의 애상을 소쩍새가 알겠는가마는  
다정도 병인 듯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③ ‘청산는 엇폐 향야~’는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의 불변성을 제시한 후, 그러한 자연을 닮아 학문수양에 정진하여 만고상청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어 풀이  
청산은 어찌하여 항상 푸르며  
흐르는 물은 또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저 물과 같이 그치지 말아서 영원히 높고 푸르게 살아가리라.

#### 【작품 정리】

##### ※ 남석하, 〈초당춘수곡〉

- 해제: 조선 후기 추담(秋潭) 남석하(南碩夏, 1773~1853) 가지은 총 172구의 중편 가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초가집에서 봄날에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봄을 만끽한 사연과 그에 따른 회포를 해박한 지식과 함께 그려내었다. 악양루·황강루 등 종국의 정자와 그와 관련된 승경 놀이를 끌어들여 봄날 자신의 고향에서 맛보는 봄날의 풍류를 그리고 있다.
- 또한 이 작품은 부귀는 세속 선비의 일시적인 영화이지만, 산수는 영구적인 친구라는 물아일체(物我一體)적 자연관을 드러내고 있다.

- 주제: 봄날의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
- 구성(수록 부분)  
1~10행-늦은 봄날의 애상적 정취  
11~20행-산수를 둘러보며 자연을 즐김.
- 특징  
– 대구법을 활용함.  
–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중국의 지명과 인명을 활용해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